

전남교육청, ‘서점 바로대출’ 확대한다…22개 공공도서관

읽고 싶은 책 협약 서점서 즉시대출 도서관, 이용자 대출·반납 도서 구입

전남교육청이 소속 공공도서관들의 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나주도서관에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시스템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서점 바로대출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서점에서 바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점에서 대출·반납한 도서는 도서관이 구입한다.
도서관이 보유하지 못한 신간 도서 등이 주 서비스 대상이다.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는 서점과 도서관 간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 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2020년 목포도서관을 시작으로 2022년 나주·영광도서관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지역 서점에서 1만3000여권의 책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부터는 지역 내 나머지 19개 공공도서관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근 행정과장은 “서점 바로대출서비스는 전남의 학생·학부모·지역민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서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서비스”라며 적극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도교육청 행정과로 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화순교육청, 학생자치 역량강화 리더십 캠프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포항공과대학교 및 부산 일원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자치회 대표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1학기 화순학생연합회 리더십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리더십 캠프는 화순학생연합회 학생들의 리더십 스킬 향상과 효과적인 회의 진행 및 기획력 배양을 통해 학생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제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리더로서의 실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포항공과대학교 학생들이 그룹별 멘토가 되어 화순학생연합회 학생들이 자치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학생 자치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팀별로 주제를 선정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활동으로 운영되었다.

그 밖의 캠프 프로그램으로는 ▲포항공과대학교 멘토와 함께하는 포항공과대학교 캠퍼스 투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 프로그래밍 체험 ▲국립부산과학관 관람 등이 진행되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1290개실

광주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와이파이 장비 설치

광주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무선 인프라를 확대한다.

지난달 29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인프라 확대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AIDT(지능형 디지털 교과서)·광주아이온(AI-ON)·에듀테크 등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콘텐츠 활용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19억6300만원을 투입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1290개실에

고성능 무선 와이파이 장비(Access Point)를 설치한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7억5700만원을 들여 유·초·중·고·특수학교 161개교의 교실·특별교실·교과교실·365스터디룸·기숙사 등 1398개실에 무선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AI·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라며 “학교 공간에



서 원활한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도록 무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내년 3월 국립목포대로 새출발

국내 최초 2·4년제 학위제 동시 운영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이 최종 승인됐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내년 3월1일자로 ‘국립목포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방대학 간 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 대학은 지난해 1월부터 통합 논의를 본격



화하고 공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캠퍼스 특성화 전략 ▲학사 및 행정조직 개편 ▲전문학사·학사 간 학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담은 통합안을 마련해 왔다.

통합안은 구성원 의견수렴, 학내 설명회,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정리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신청서가 제출됐다.

교육부는 이후 7차례에 걸친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통해 통합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캠퍼스 운영 전략, 학사 구조 개편 방

향,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28일 두 대학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통합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2년제와 4년제 학위과정을 하나의 대학 안에서 통합 운영하는 고등교육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학사 과정으로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진로 설계가 가능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이번 통합을 통해 국립목포대학교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7개 특성화 캠퍼스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3월 통합대학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남도립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적 및 규정 제·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담양캠퍼스 인프라 개선 등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금당중, ‘고교학점제·진로 전략’ 특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육으로 진로 역량 키워

순천금당중학교(교장 정미자)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학부모·학생·교사를 대상으로 ‘변하는 입시정책! 중학교 우리 아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진로·진학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강의는 진로 설계 방법,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고등학교 유형과 선택 기

준, 진로와 연계한 학교 선택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교육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순천금당중은 본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전 홍보를 진행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특강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자녀의 진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